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의지 확인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 이어
무주군-대한태권도협회, 협약 체결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 역량 결집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나서고 있는 무주군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에 이어 지난 31일 대한태권도협회와 손을 잡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양진방 회장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성재준 사무총장과 박성욱 전락사업부장, 김중환 경기부장,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유은주 전락사업부 차장이 참석했다.

무주군에서는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과 문현중 행정복지국장, 문화체육과장, 노상은 태권도팀장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산업화 등 태권도 진흥 발전을 위한 협력 의사를 담은 양해각서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두 기관의 역량을 모으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자문 컨설팅 지원과 홍보 지원,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 명시됐다.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5개 연맹, 11개 해외 지부를 관리하며 태권도 선수 및 심판, 운영 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대한태권도협회의 양진방 회장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이 태권도인들을 단합시키는 계기이자 태권도의 제2약약을 위한 다짐들이



지난 31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무주군-태권도협회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황인홍 무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와 결집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우슈가 호시탐탐 태권도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오늘 협약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의지

는 대한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전 세계 210개국에서 입학생 모집, 졸업생에게는 국제 사범 자격 부여)으로, 무주군은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임을 강조하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국의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7월 개최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이 목표

완주군청 레슬링 이한빛
아시아 쿼터대회 참가
2등 이상 성적 거둬야

완주군청 소속 레슬링 국가대표 이한빛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노린다.

지난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여자레슬링 이한빛 선수가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했다.



레슬링 여자자유형 62kg 체급 국가대표 이한빛 선수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쿼터대회에서 2등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올해 7월 개최하는 도쿄올림픽 본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다.

만약 아시아 쿼터대회에서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할 시에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세계 쿼터대회에 출전해 2등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또한 이한빛 선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지는 2021 아시아 시니어선수권대회도 출전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완주군의 기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액식

지난해 현액자 박해만·강원식 원로 참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지난 31일, '2020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액자를 초청해 태권도원에서 현액식을 가졌다.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은 태권도 보급 및 발전,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 인사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현액자는 2년 주기로 선정한다. 2020년 현액자로는 대한태권도협회 창립 임원으로 품새 용어 정립과 태권도 한글 표기 등에 기여한 '박해만 원로'와 국기원 특수법인 전환 이후 초대원장 및 태권도학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한 '강원식 원로'가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현액식은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 및 현액자 등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현액식은 국립태권도박물관에 설치되었던 기존 현액자 27인의 동판을 지난해



말 준공한 명인관 내 현액공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2020년 현액자 27인의 동판을 새롭게 제작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장용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 세계화에 기여하신 두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태권전과 명인관이 준공된 시점에 두 분을 추가로 현액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레슬링·역도, 전국대회 맹활약

레슬링·전북체육중·고, 메달 수확
역도·하이트진로 女, 금·은 획득

전북 레슬링팀과 역도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북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팀과 하이트진로 역도팀이 최근 펼쳐진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대거 수확했다.

전북체육·중고등학교(교장 박재중) 레슬링팀은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39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및 제31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전북체고 레슬링 선수들은 그레코로만형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대회 3년 연속 종합우승했다.

그레코로만형에 출전한 이주원(55kg)과 최재노(97kg)는 금메달을, 김경태(67kg)와 이용현(51kg)은 은메달을, 윤강민(60kg)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체육중·고 레슬링팀



하이트진로 여자 역도팀

이밖에도 자유형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전북체중 역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으로는 이주원 선수가 최우수지도자상은 김신규 코치가 각각 선정됐다.

전북체육·고 박재중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훈련과 경기에 열심히 임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여자 역도팀도 선전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1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87kg급에 출전한 김지현은 인상(110kg)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지만, 용상(151kg)과 합계(261k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71kg급 유민아는 인상(84kg)과 합계(191kg)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전북체육회 유인타 사무처장은 강원도 양구 등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